

Chapter 8. 알케이디아 (ARCADIA)

고대 그리스인들은 “알케이디아”라 불린 먼 곳에 있는 지역에 관해 기술했다.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곳은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목가적인 곳이며 주민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캘리포니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을까? 그들이 아르헨티나의 gaucho (가우초) 이거나, 캘리포니아의 “란체로” (ranchero) 들이건 간에, 라틴 아메리카 전 지역을 통해서, 대규모 “란초 (목장: rancho)”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다. 그들은 지역의 지도자들이었고, 라틴 문화권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한편, 아메리카 식민지를 장악한 스페인의 힘은 차츰 약해져갔다. 간접적인 스페인 국왕 정부는 물자와 보급품을 보내어, 스페인 식민지들이 더 스페인에 의존하도록 할려고 했지만, 스페인 제국은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 있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다. 항구에 스페인에서 오는 배들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식민지 거주자들은 차츰 그들 스스로 자립하는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식민지 거주자들에게는 풍부한 인디언들의 노동력과 깨끗한 물, 그리고 풍부한 목축지가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목축 조건은 거의 완벽했다. 가축들이 년중 거의 거처가 필요없을 정도로 기후가 온화해서, 목장주들은 울타리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스페인에서 물려 받은 전통인 목장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은 서로 신뢰했다.

“쁘르톨라” 팀이 캘리포니아에 가져온 겨우 200 마리 소떼들, 그 중에서도 “데안자” 팀을 따라 많이 이동하고 살아남은 얼마되지 않는 소떼들이, 캘리포니아의 오리지널 무리들이 되었다. 이들과, 그 후손 동물들이, 나중에는 수출을 할만큼 풍부한 양의 소가죽 (hide)과 소기름 (tallow)을 생산해냈다.

스페인과 그 후의 멕시코 통치 시대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랜드그란트 (토지 수여: land grant)” 만큼 캘리포니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없었다. 오늘날의 토지 소유권들은 한때, 지엽적인 부로 여겨졌던 이들 “랜드그란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많은 “랜드그란트”들이 아직까지도 그 원래 이름들로 불려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엘 토로 (황소: El Toro)”, “로스 라우렐레스 (월계수: Los Laureles)”,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홀리 패밀리: La Sagrada Familia)” 같은 것들이 그 예들이다.

1784 년에 “빠게스” 주지사가 3 평방 리그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랜드그란트”를 수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스페인 통치 시대에 “빠게스”와 후임 주지사들은 30 건 이하만 허락 했지만, 1821 년에 멕시코 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는, “랜드그란트”가 급속히 늘어났다. 1830 년경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의 50 개의 개인 목장들이 존재했다. 성실한 멕시코인들이나, 멕시코로 귀화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한 외국 출신들도, 거의 5 만 에이커에 달하는 11 평방 “리그”의 땅을 청원할 수 있었다. 1 평방 “리그”는 4,438 에이커보다 조금 더 큰 땅이다. 오늘날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는 규모가 큰 목장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4-5 평방 “리그” 목장은 작은 편에 속했다.

1833 년에 멕시코 정부가 캘리포니아 밋션들을 세속화하고, 그 후,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를 점령할 때까지 사이에 목장 시대가 융성했다. 1848 년까지에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백인들은 14,000 명 밖에 되지 않았고,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오 (스페인 출신 식민지 거주자: Californio)”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외국인들 이었다.

목장들의 경계는 언덕, 선인장들, 개천, 혹은 햇볕에 말라버린 소뿔들 같은 것으로 대충 표시되었을 뿐이었다. “모호네라 (mojonera)”라 불린 돌 무더기에서 출발해서 “레아타 (reata)”라 불린 가축을 잡아들이는 끈을 매단 말을 탄 사람이 토지를 측량했고, 그래서 많은 사유지들의 경계가 다소 애매하게 되었는데, “쁘꼬 마스 오 메노스 (poco mas o menos: 조금 작거나 크거나)”라는 표현이 토지 문서에 씌어 졌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차지한 후 오랫동안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대규모 목장에 기반을 두고 가문들의 재산이 형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Francisco Pacheco 는 San Felipe 목장, San Luis Gonzaga 목장등 총 125,740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했다. San Felipe 목장과 San Luis Gonzaga 목장 만으로도 소 14,000 마리, 말 500 마리, 양 15,000 마리를 키웠다. Estrada 패밀리에 장가든 스코틀랜드 사람 David Spence 는 25,000 에이커에 달하는 Buena Esperanza 목장에서, 소 4,000 마리를 길렀다. Massachusetts 출신 Henry Delano Fitch 는 11 평방 “리그”에 달하는 Sotoyome 목장에서 소 14,000 마리, 말 1,000 마리, 양 1,000 마리를 길렀고, 다른 미국인 Adel Stearns 는 한때 소 3,000 마리, 말과 나귀들 2,000 마리, 양 10,000 마리를 가진 수천 에이커를 소유하기도 했다. 스위스 출신 Johann Augustus Sutter 는 길이 60 마일에 달하는 11 평방 “리그”의 땅을 경영했다. 오늘날의 Oakland, Alameda, Berkeley 같은 도시들은 당시의 San Antonio 목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Don Luis Peralta 의 소유였고, 그는 소 8,000 마리, 말 2,000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멕시코 시대에 평균 1,500 마리의 소를 가진 목장들이 1,000 개 이상 존재했다.

당시에는 소떼들이 경제의 근간이었다. 소가죽으로 안장, 마구들, 신발, 심지어는 문의 경첩도 만들었고, 소뿔을 벽에 걸어두어 침입자를 막거나, 신발에 붙이는 단추를 만들기도 했다. 소기름 (tallow) 으로는 전기불이나 기름 램프가 나오기 전의 필수품이던 양초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죽과 소기름은 캘리포니아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캘리포니오”들은 양키 상인들 같은 외국 선박들의 선장들에게 소가죽과 소기름을 주고 필요한 옷, 기타 필수품들과 교환하는 “바터”를 했다. 말린 소가죽을 말하는 “캘리포니아 지폐”는 대략 1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가축을 기르는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과 목장 일꾼들은 말과 소떼들을 잘 다루었다. “바케로 (vaquero: 카우보이)”들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되었고, 몇몇 목장들에서는 인디언 일수도 있는 “마올도모 (mayordomo)” 아래 백명 이상의 인디언들을 고용했다. 펜스가 없었기 때문에, 가축들이 너무 날뛰게 되어, 맨발로 무기없이 가축들 사이를 걸어가는 것은 위험했고, 누구나 목장을 둘러 볼려면 근처 산에 살고 있던 그리즐리곰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했다. 목장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말이었다. 좋은 말을 살려면 3 달러 정도 들었는데, 이는 말안장과 굴레의 값 보다도 싼 것이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품질이 낮은 가축들은 죽여야 했다. 소떼들과 마찬가지로, 말들도 때로는 난폭해졌다. 말들이 너무 많이 번식해, 목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몇마리들은 절벽에서 바다로 빠뜨려졌다. 가축들을 분리하거나 낙인을 찍는 방식인 가축몰이를 의미하는 “로데오 (rodeo)”는 개별 “바케로”가 동물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재빠르게 칼로 목을 베어 동물을 죽이는 “마탄자 (matanza: 소도축)”도 행해졌는데, 동물이 죽으면 바로 가축을 벗기고, 고기는 덩어리로 잘라져 말려지고, 기름은 녹여져 가죽 백에 담아 항구에 정박한 배들로 보내졌다.

1841 년 캘리포니아를 여행한 미국인 화가 Titian Ramsey Peale 은 언덕과 계곡들이 말라 버린 소들 잔해로 뒤덮여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Peale 이 지나갈 때, 말발굽 아래에서 끊임없이 뼈들이 뚫히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목장들에서는 작물들은 별로 재배되지 않았지만, 처음 오렌지와 포도를 기르기 시작한 밋션들에서는 농업이 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San Jose 밋션에서 수도사들은 1 평방 마일이나 되는 밭을 수확했다. 하지만 농사 방법은 원시적이었다. 인디언들은 휘어진 나뭇가지를 사용한 나무 쟁기로 땅을 파고, 알곡들은 손нат으로 잘랐고 다발로 묶여졌다.

탈곡할 때는 땅에 동그랗게 펜스를 두르고 바닥에 물을 뿌린 후, 땅이 굳어질 때까지 밟았다. 그리고는 밀다발을 땅에 간후, 탈곡될 때까지 나귀가 밟은 후, 밀다발을 바구니에 넣고 바람이 키질 (winnow) 하도록 했다. 곡식을 찧는 것은 처음에는 돌절구 (stone mortar)와 돌 공이 (pestle)를 사용해, 손으로 했지만, 수도사들이 차츰 물의 힘을 이용한 곡식 찧는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2 개의 둥근 돌로 된 “아라스트라 (arrastra)”라고 불린 장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곡식 찧는 장비가 되었다. 돌 두개사이에 끼인 알곡이 뺏아 지도록하는 이 방식은 수백년 전부터 스페인에서 쓰던 방식이었다.

“캘리포니오”들은 양떼들은 소떼들 만큼 쳐주지는 않았지만, 각 밋션들과 대부분의 목장들에서는 고기와 양모를 얻고자, 소규모의 양떼를 길렀다. 비록 거칠고, 꼬불꼬불 했지만, 양모는 강했다. 여자들은 양모로 옷감과 이불을 짰다. 돼지는 주로 돼지 기름 (lard)을 얻고자 길렀는데, 돼지 기름을 재와 섞어 비누를 만들었다.

목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대족장 체제 (patriarchal system)로 운영되었다. 목장의 가족들은 각각 자립해 생활하는 단위였고, “란체로”는 확실한 마스터였다. 가족 구성원들과 인디언 관리자들 모두 그에게 복종했다. “란체로”는 해 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 빵과 초콜렛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하고, 말을 타고 가축 떼들을 둘러보는 일과를 시작했다.

목장에서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엄격하게 자식을 키웠다. 아버지는 나이가 거의 60 이 된 자식이라도 체벌할 수가 있었고,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결코 담배를 피울수 없었다. 나이드은 사람들 부터 댄스를 시작했으며, 젊은 사람들은 차례가 돌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변경에서의 삶에는 풍요와 결핍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옷과 기타 제품들은 언제나 부족했지만, “란체로”와 그의 가족들은 스페인 선조들로 부터 검소하게 사는 방식을 물려 받고 있었다. 여자들은 신발, 스타킹, 옷, 긴 스카프, 망토가 없을 때에도 그냥 불평없이 지내도록 가르쳐 졌다.

그리즐리곰, 엘크 등을 사냥하는 것은 인기가 있었다. “메리엔다 (피크닉: merienda)” 때 “란체로”들은 최고의 말을 타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황소가 끄는 2륜 “카레타 (왜곤: carreta)”를 타고 갔다. “메리엔다”에서는 “카르네 아사다 (로스트 비프: carne asdada)”, 치킨, 칠면조를 싯별건 숯불위에서 구워 먹었고, 인디언 여자들은 돌절구에 옥수수를 갈아 “또르띠야 (tortilla)”를 만들어 enchilada 나 tamale 를 만들어 먹었다.

목장의 가족들이 “하라베 (jarabe)”나 “판당고 (fandango)” 댄스를 출때, 게스트가 없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란체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으며, 돈이 떨어진 방문객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져 갈수 있도록 테이블위에 동전들을 남겨 두기도 했다. 지친 말을 타고 온 방문객은 다음날 아침에 타고 갈수 있도록 새 말에 안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곤 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교육은 제한적이였다. 선생님들 중에는 단순히 조금 읽고, 쓰고, 그림 조금 그릴 줄만 아는 제대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멕시코 통치 시절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은 6 개 언어를 할줄 알았던, 원래는 영국 상인이었던 William Hartnell 이였다. 그는 Salinas 근처에 정착해 그곳에서 독특한 학교를 설립했다. William Hartnell 은 나중에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에서 미국 통치로 넘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멕시코 통치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살인, 각종 범죄는 드물었다. 캘리포니아를 찾아온 선원들은 “란체로”들에게 크레딧을 받기만 하고도 종종 물건을 팔기도 했는데, 그들은 몇달 뒤에 다시 와서는 약속된 금액을 소가족이나 소기름으로 받아 가곤 했다. 이들 초기 상인들 사이에는 서로 믿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46 년에 미국 통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부터는, 심지어는 강도 행위가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리게 된다. 유명한 강도 Joaquin Murieta 는 미국 광부들에게 받은 대우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사들은 변방에서의 삶을 안정시킬려고 노력했다. 세례, 확인, 결혼등의 중요한 의식들은 물론, 밋션에서 행해졌고, 밋션에는 생가죽 (rawhide)을 덮은 침대와 아마 (flaxen)로 된 침대보가 있었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도 있어, 밋션은 여행자들의 접대소 역할을 해, 그들이 하룻밤 안전하게 묵기도 할 수 있었다. 폭풍이 치는 날, 지친 여행자들은 화로에서 타는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밋션에 머물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현대의 캘리포니아는 이런 목가적인 시대를 기억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 유산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강들, 산들, 그리고 마을들은 여전히 초기 스페인 개척자들이 지은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란초”와 “로테오”뿐만 아니라 “아도비 (햇볕에 말린 벽돌: adobe)”, “아로요 (작은 냇물 또는 냇물이 말라버린 바닥: arroyo)”, “캐년 (높은 강둑 사이의 좁은 길: canon)”, “차파랄 (브램비 나무 덩굴 :chaparral)”, “코랄 (가축 우리: corral)”, “엠바카데로 (달을 내리는 곳: embarcadero)”, “피에스타 (축하: fiesta)”, “플레이서 (단단하지 않은 땅에 있는 금맥: placer)”, “플라자 (광장: plaza)”, “푸에블로 (공인된 마을: pueblo)”, “시에라 (글자 그대로 톱, 또 봉우리가 날카로운 산: sierra)”, “톨리 (물에 사는 갈대: tule)”, “바케로 (카우보이: vaquero)” 등의 많은 단어들이 스페인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접두사로 쓰이는 “상” (san) 과 “산타” (santa)는 “성자”를 뜻하는 말의 남성과 여성형이고, 밋션 이름들을 지을 때 사용되었으며, 나중에는 밋션이 위치한 카운티의 이름들이 되기도 했다. San Diego, San Luis Obispo, Santa Clara 가 그런 예들이다. Merced 와 Sacramento 카운티는 주요한 강들의 이름을 딴 경우인데, King County (El Rio de los Santos Reyes, 즉 “홀리 킹들의 강”)도 그런 예이다. Merced River 는 처음에는 El Rio de Nuestra Senora de la Merced (자비로운 마리아의 강, 즉 “River of Our Lady of Mercy”)라 불렸는데, 1806 년 Gabriel Moraga 원정대가 적대적인 지역을 통과해서 강변에 지친 상태로 도착했을 때 붙인 이름이었다. Moraga 는 또 강둑에서 나비들을 본 후, 그곳을 Mariposa Creek 이라 했고, Holy Sacrament (성찬)를 따서 Sacramento River 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Fresno (재) County 는 ash tree (물푸레나무)들이 그 지역에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Madera (목재) County 는 그 지역을 덮고 있던 덩굴 숲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Monterey Bay 는 몬테레이 백작인 Gaspar de Zuniga y Acevedo 총독을 기려 붙여진 이름이고, Mendocino 는 뉴스페인의 초대 총독인 Antonio de Mendoza 에서 따온 것이다. 몇몇 마을이나 도시들 이름들은 저명한 캘리포니아인들의 이름에서 따기도 했는데, Martinez, Vaca 패밀리를 기린 Vacaville 등이 그런 예들이다. Alviso 는 de Anza 팀의 한 사람 이름을 딴 것이고, Benicia 는 Mariano Vallejo 장군의 부인 이름이다. 그리고, Vallejo 마을은 인기 있던 Vallejo 장군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멕시코 출신 주지사의 이름을 딴 Alvarado Street 은 Monterey 와 Los Angeles 두 곳에 있고, Los Angeles 간선도로들 중의 하나인 Figueroa Street 은 또 다른 주지사 이름에서 온 것이다. 수십개의 Los Angeles 도로 이름들이 스페인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Pico, San Pedro, Aliso, Sepulveda 등이 그런 예들이다. San Francisco 에는 Noriega, Pacheco, Ortega, Rivera, Taraval, Ulloa, Guerrero, Valencia, Palou 뿐만 아니라, Junipero Serra Boulevard 가 있다. Oakland 에도 Alcatraz (켈리칸 새)와 San Pablo (성 베드로) 라는 이름을 가진 길들이 있다.

하지만 장소들 이름과 건물들만이 옛날에 스페인이 통치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앵글로 카우보이들은 노우하우, 말, 장비 (가축을 묶는 끈인 reata, 말의 박차 (spur), 카우보이의 신발 장식인 chaps, 그리고 긴 밧줄인 lasso) 등 그들만의 용어들을 스페인 사람들에게서 물려 받았다. 그리고 광산, 수자원법, 침입에 관한 규정, 분쟁 조정 법정, 여성의 재산권등에 관한 캘리포니아의 법 체계는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식 규정들을 간직하고 있다.

스페인 사람들의 역사를 기념하는 야외극이나 연극에는 “상 가브리엘 밋션 극” (Play of San Gabriel), San Francisco 의 Portola Festival, Riverside 의 “데안자 축제” (De Anza Days), 그리고 해마다 Santa Barbara 에서 열리는 Spanish Fiesta 가 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스페니쉬 역사를 (종종 부정확하게) 활용하는 가계 학자 (genealogist)들, 예술가들, 건축가들, 열렬한 관광 진흥론자들, 심지어는 역사 학회 등이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